

디지털 시대, 금융포용을 위한 핀테크 전략¹

양효은 세계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면모를 바꾸어 가고 있다. 오랫동안 금융시장을 지배해왔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 하락과 파산의 위기를 겪는 사이, “핀테크”로 불리는 혁신적인 신생 금융기업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고 참신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의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핀테크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들 역시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핀테크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핀테크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포용적 성장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가 가져온 혁신의 잠재력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해 핀테크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혁신의 사회적 영향 및 가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1)핀테크가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미친 영향 (2)금융포용 촉진을 위한 핀테크의 역할, 그리고 (3)효율적 핀테크 성장을 위한 “핀테크 에코시스템”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밀레니얼 세대와 금융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핀테크의 폭발적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 그리고 불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규제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보편화 속에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자 금융위기를 겪으며 ‘보수적 금융소비자’의 특징을 갖게 된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서 부상하면서, 이들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에 부합하는 대체적인 디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고객의 필요에 맞춤형 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최신 기술에 민감하고, 서비스의 자동화를 당연시하며, 편리함을 최우선

¹ 본 고는 Journal of APEC Studies Vol.11 No.2에 게재된 논문 ‘Fintech as a Strategy of 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Digitalization’을 국문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위에 두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디지털 문화가 최근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모든 세대에 걸친 핀테크 활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언스트앤영(EY)에서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글로벌 평균 핀테크 활용률은 64%로, 2017년에는 33%, 2015년에는 16% 였던 데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핀테크의 빠른 성장은 핀테크가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객들의 기대와 경험을 바꾸어 가면서 이미 금융시장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핀테크의 급속한 성장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핀테크 서비스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빠른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스마트폰은 셀룰러 IoT를 제외한 모바일 인터넷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이 수치는 7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모바일 인프라의 빠른 확산은 모바일 기반의 핀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금융포용을 위한 핀테크의 역할

금융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도구로서 핀테크의 역할은 이미 수년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아 왔다. 유엔(UN)은 2015년에 고질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17가지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 중 빈곤퇴치, 굶주림해소,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포함한 13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제적 방안으로 디지털 금융의 활용에 주목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포용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영국의 5개국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 핀테크 활용률은 25%에 도달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 및 판매와 직결되어 있어서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들의 핀테크 서비스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 시스템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금융서비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무엇보다 핀테크로 인해 촉진된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쟁 국면은 고객들이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 시장의 경쟁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핀테크 에코시스템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핀테크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지만, 하나의 산업으로서 핀테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타트업, 금융기관, 정책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 등 핀테크 산업과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경쟁과 협력의 네트워크인 '핀테크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효율적인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재, 자본, 수요, 그리고 정책의 네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에코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네가지 요소가 골고루 발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동일한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자들 간에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가져오는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핀테크의 잠재력이 경제 전반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소외 계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포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한 실제적 전략으로서 핀테크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객들의 변화된 요구에 맞춤형 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면서 금융포용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핀테크의 잠재력이 경제 전반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자, 고객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주체들 사이에서 핀테크 발전의 성과를 결정짓는 핀테크 에코시스템의 구조와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태생적으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핀테크 산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금융포용을 위한 촉진제로서 핀테크의 활용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핀테크 에코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발달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경쟁이 보장될 때에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금융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다.